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9,

애가 3: 34-51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9회기 애가 3:34-51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가 3장 34절부터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33장에 각주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서 말한 이 단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그분이 때때로 하셔야 하는 일에 비해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회개에 적용한 두 개의 본문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성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성서입니다. 그 중 하나는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입니다.

에스겔 18:33, 2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32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사람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표현은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과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은 멘토가 3장 33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는 기꺼이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스탠자와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앞에서 인권이 패할 때, 사람의 송사가 패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는 닫는 주절이 있는 일련의 시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스탠자에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특정 시점에서 애도하는 시간과 관련된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둘째, 그 주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이 때, 언제, 언제, 언제, 그리고 36절 끝에 있는 마지막 주요 절을 조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마지막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RSV에서 주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시나요? 그리고 NIV도 같은 노선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버전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호한 점이 있으며 이를 진술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문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주석가는 적어도 그 점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학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증언한 탄식에 대해 제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특정한 해석과 일치합니다. 즉, 그것은 죄를 암시하기보다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련의 비난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내가 밟고 싶은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목소리 톤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는 질문의 첫 번째 단어 끝에 특별한 작은 요소가 배치되어 청자나 독자에게 질문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특히 주절 앞에 다른 절이 올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늘 오후에 쇼핑하러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톤은 그것이 성명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신이 오늘 오후에 쇼핑하러 갈 것'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소리의 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히브리어에는 물음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술로 받아들여 해당 동사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과 번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동사의 특별한 의미는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승인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결국 동일한 의미를 얻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질문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애가서에서 이 동사가 신성한 주제와 함께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하기 위해 문제를 인지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도 여기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문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글썄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겪은 재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유다의 침공, 18개월 간의 긴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난과 그로 인한 고통. 오히려 현대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포위 공격이 끝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점령국에 있고 군사점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5장이 동일한 현대 상황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탠자는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은 일어난 일에 대한 슬픔, 지속적인 슬픔, 끔찍한 재난, 또는 그것이 초래한 끔찍한 고통보다는 그들이 지금 있는 회중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현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포로들이 발 밑에 깔려 있을 때 점령군이 전쟁 포로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일반적인 정책의 일부였으며 35절에 표현된 나쁜 정책이었습니다. 인권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들이 항상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마지막 조항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회중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던 불공정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이 파기되면 당국에 항의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쁜 상황에 새로운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의 표현이 있습니다. 35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면전에서 구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직접적인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한 평론가가 말했듯이, 야훼는 공의의 옹호자이시며, 이러한 나쁜 상황을 처리하실 분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심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이전에 이사야 10장의 가장 중요한 예언 본문이 침략, 그 여파로 인한 외국 침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는 앗시리아인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본문은 앗수르가 나의 진노의 지팡이이며 내가 앗수르를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 괜찮아. 그러나 이어서 유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말하되 앗수르가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행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너희를 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형벌, 침략군 측의 과도한 형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앓수르인들이 차례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면 정책, 그 두 번째 부분이 여기서 선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사 점령과 관련하여 이사야 10장을 즉시 생각하게 되며, 이와 같은 불만이 계속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인권을 부인하는 편에 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힌트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머지않아 도달하게 될 요점입니다. 우리는 37절에서 39절까지 왔는데, 이것이 40절에서 41절의 기도로의 부르심 전의 마지막 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40절과 41절에 나오는 제단 부르심 전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니터, 멘토는 그가 31장에서 33장까지 설정한 심판과 구원의 패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읽고 있는 것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임하지 않으시면 누가 명령하고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가장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숨쉬는 자가 어찌하여 자기 죄의 형벌을 불평하리요? 그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37절에 나오는 질문 전체는, 주님께서 정하지 않으시면 누가 명령하고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답은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그것을 명령하고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 관한 문제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if"라는 단어는 새로운 RSV와 NIV에 어떤 의미로 삽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것은 두 번째 조항이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지 않으셨는지

여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지 않으셨느냐는 질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명령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명령과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지 아니하셨느냐? 다른 주석가들과 함께 제가 이 대안적 설명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전에 애가에서 사용되었던 종류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웃이 그의 원수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다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는 포로 전 예언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웃 사람들은 유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7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오래 전에 작성한 대로 위협을 수행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포로 이전의 예언적 계시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수받은 단어는 47절에 나오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려면 행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포로 이전 시대의 예언적 계시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멘토가 말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영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이 온다고 하신 것이 아니냐? 글썄,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정말 나쁘고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면적인 정책이다. 처벌은 필요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만이 그 죄를 회개한다면 좋은 전망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포로 이전의 예언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는 양면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류의 보증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그가 새로운 좋은 면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 예언적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처음에는 좋았고, 처음에는 나빴고, 그다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력한 칭호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처벌은 필요한 첫 번째 단계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39절에 숨쉬는 자가 어찌하여 자기 죄의 형벌을 불평하리요? 또는 NIV에 따르면 누구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이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확신을 얻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침략과 포위 등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새로운 일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생존자입니다.

내가 생존을 기뻐했듯이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당신의 죄의 형벌에 대해 불평해야합니까? 물론, 당신은 당신의 죄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불평이라는 단어로 끝내야 합니다.

불평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제게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 배울 때 그들이 종종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종류의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동사인 불평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에 대한 오경의 이야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병 고치는 중에 백성이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서 진영의 일부 지역을 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렬한 반응이 나오네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어찌 감히 불평하느냐?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부당한 불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장이 계속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출애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적인 불평이고, 이것은 동사,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불평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6장, 민수기 16장에서는 음식과 물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불평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나 음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신이 말씀하시길, 제가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불만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한 부정 동사가 있는데, 이는 부정, 기본적인 부정, 매우 과감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발생하는 불평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의 형벌에 대한 민수기 11장의 불평과 같은 동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전체와 그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홀로코스트와 유대교의 위대한 옹호자이자 유대 신의 옹호자였던 엘리 위젤(Elie Wiesel)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개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계속 신자로 남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해 매우 사랑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방법이 있고, 불평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고, 불평하는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일어난 모든 일을 개탄하지만 내 믿음을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점, 점, 점,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여기 40절과 41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회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자신을 여기 회중과 동일시합니다. 우리의 길을 시험하고 살펴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드립시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배척했는데 너희는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41장부터 42장까지가 참회 기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42-47번은 아마도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도를 회중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40대41이 통화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자기 성찰을 통해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41절에는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드립시다.

그리고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어떤 형태로든 말을 하는 외적인 동작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심으로 말하고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들어 올리십시오. 물론, 외부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내부적인 반응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2장과 19절, 2:19에서 말한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밤에도 일어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붓고,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위해 그분께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래서 손을 들기도 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전제는,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악에서 선으로, 형벌에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옮기시려면 이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구약성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뒷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동과 선한 의도 등의 앞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심과 고백이라는 뒷문 접근 방식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즉 열려 있는 문입니다. 나는 멘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유다의 슬픔을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사점이 알코올중독자협회(Alcoholics Anonymous)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라고 가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모든 슬픔은 독특하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에 대응하는 하나의 표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은 자주 등장하지 않으며 때로는 죄책감이 불필요하고 실제로 해로운 자기 비난의 측면에서 잘못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AA 뒤에 있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는 죄책감이 매우 많이 존재하며,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12단계 프로그램에는 40절과 41절에 매우 가까운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해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도덕적 목록을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5단계로 넘어가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정확한 성격을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기억나네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인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딸은 1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는데 5단계에 도착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보러 가도 될까요? 네, 확실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이 5단계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자백과 회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단계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관련이 있으며,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상황과 다른 많은 사례를 볼 때 애도가 생생하게 솟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42~47절을 모범적인 기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는 시편의 애도 기도와 매우 유사하지만, 그 안에 참회 요소가 포함된 공동 애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 애도에서 찾을 수 있는 누락된 요소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청원은 없지만 44절에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확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과 인간 적의 손에 적들이 겪은 경험에 대한 참회 기도의 측면에서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인 참회적 요소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했는데도 당신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반항을 뜻하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범법의 형태로 사용했던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동사인 반역자 역시 앞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강조를 위해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범법하고 반역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분노로 자신을 감싸고 우리를 쫓아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아직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야 고백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거역하던 시절에 당신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자백 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지금 자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꽤 합리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용서는커녕 분노로 몸을 감싸고 우리를 쫓아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주의 날과 관련하여 분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하신 일시적이지만 필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는 일, 우리는 이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닥칠 재난을 예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도록 당신 자신을 구름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단이 있었습니다. 죄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오물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말한 처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회중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마침내 회중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가 그들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이것이 당신이

기도해야 하는 종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기서 제안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종류의 기도를 얻을 때까지 5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자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이 고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이 재앙은 46장과 4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공포와 함정, 황폐와 파멸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함께 우리가 암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적을 사용하셨고 그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롱이고 이것은 굴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45년부터 계속되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오물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시됩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고통의 이차적 측면입니다.

재난은 다른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낙인을 가져올 수 있고, 당신을 모욕함으로써 더 큰 고통, 즉 이차적인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력한 진술에서 영국인들은 두운을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히브리어의 두운은 종종 강조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함정, 두 개의 p, 그리고 황폐와 파괴, 두 개의 d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겪은 재난의 극한 상황을 가리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회중이 겪은 재난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죄를 고백한다는 제목 아래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범법하고 반역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들이 이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미래의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들은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48~51일에는 멘토가 이어받습니다. 물론 그는 끝까지 회개의 기도를 제안하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스스로 말하러 온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감찰하실 때까지 내 눈이 쉬지 않고 흘러가리로다. 내 눈은 도시에 있는 모든 젊은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3장을 상처치유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Car Jung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했는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사는 환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환자가 처한 슬픈 상황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헨리 나우웬이 그것을 목회적인 방법으로 적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사가 그에게 너무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회중 중 한 사람 때문에 압도당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과 나우웬은 이것을 목회자가 되기 전이나 현재의 목회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은 목회자의 일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상처를 입은 치유자는 그 치유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3장의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간증에는 자신이 겪은 이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처받은 치료자가 있습니다. 회중과 그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멘토는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회중 측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감찰하실 때까지 내 눈이 쉬지 않고 흘러가리로다.

그리고 그는 책 앞부분에서 시온의 부르짖음을 선택합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회중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요점과 특정 요점을 제시합니다.

내 눈은 젊은이들과 도시의 모든 젊은 여성들의 운명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NIV는 조금 더 명확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우리 도시의 모든 여성들 때문에 내 영혼에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리고 나는 앞서 책에서 포위 공격, 점령 문제, 포위 공격에서 점령으로 해당 장이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상황으로 옮겨가서 국토의 포로들이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34절부터 36절까지 사건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략군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여자들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Stanback Helpless와 다른 모든 유대 남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모든 젊은 여성들의 운명에 슬픔이 생겼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외국군인들이 뛰어올라 강간을 하는 것이 그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기력한 소녀를 보호하며 갑옷을 입은 기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남자의 남성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보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힘과 갑옷은 빼앗겼고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너무 슬프게 해서 그는 우리 도시의 모든 젊은 여성들의 운명인 전통적인 남성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강간은 현재 회중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5장에서 직접 언급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52절부터 66절로 넘어가서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9회기 애가 3:34-51입니다.